

## News

### 6% 찍고 7% 가는 주담대 금리...이자 깎아줘도 "대출 겁난다"

머니투데이

오늘부터(국민은행은 16일부터) KB국민, 우리, NH농협 등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02%p 인상... 기준이 되는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2%로 전월비 0.02%p 상승  
향후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밖에 없어... 신규 수요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도 전체의 약 76.5%가 변동금리 이용 중이라 여파가 커...

### 가계대출 수요 주는데 인터넷은행 창구는 '복직'

조선비즈

한국은행의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원으로 전월비 1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  
이러한 분위기와 별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세... 3월 말 기준 총 잔액 36조 1,439억원...전년 말대비 7.9% 증가

### 48조 서울시 금고지기에 신한은행...금고 전체 말아

이데일리

서울시 1·2금고 자리 두고 최종적으로 신한은행이 선정... 1·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맡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 더 매력적인 출연금과 적극적 사업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1금고 말고 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 1금고와 같은 은행으로 선정될 경우 전산과의 연계 등 편의성 증대 가능... 26년 12월 31일까지 총 47조 7,000억원 관리 예정

### 가상자산 열풍에...케이뱅크 작년 수신액 절반 이상 업비트 효과

연합뉴스

케이뱅크, 작년 말 기준 예수금 112조 3,175억원... 이 중 법인 예수금이 6조 6,492억원으로 58.75% 차지... 개인 예수금은 4조 6,682억원으로 41.25% 차지  
고객이 동사를 통해 업비트에 입금해 보유하는 금액이 법인 예수금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 작년 비이자이익 증가도 수수료 수익 비중 컸기 때문

### 백내장수술 절판영업에 실손보험금 급증...당국, 특별포상금 확대

연합인포맥스

금감원, 특별 신고기간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 확대 지급하는 방안 마련...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정액 포상금 지급  
최근 일부 안과병원이 환자 부추겨 백내장수술 유도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 마케팅이 확산되고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 금융업계, M&A로 들쭉...보험·카드사로 눈돌린다

이뉴스투데이

MG손해보험, 지난 13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며 기업가치 하락... 국내외 4개 이상 금융사들이 MG손보 매입에 눈독... 매입가로 아직은 적극적 구매 의사 보이지 않아  
JC파트너스 인수 절차 무산 가능성 커진 KDB생명도 주목... 이번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수건도 불투명해져... 한국신용평가 "추후 한국산업은행의 추가 매각 시도 가능성 존재"

### 증권사, 올해도 달려채 발행 지속...미래에셋·NH증권 대기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필두로 NH투자증권 등이 조달 준비 중... 외화 자산 성장세에 발맞춰 한국물(Korean Paper) 시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올해 미국 연준의 긴축 전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맞물려 투자 수요 위축세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흥행 여부에 더욱 관심 집중

### 증권사 '빚투' 이자율 급등...연내 10%대 전망

데일리안

증권사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높이는 가운데 유동성 축소에 따라 거래대금과 빚투는 줄고 있는 상황  
교보증권, 오는 18일부터 일부 구간의 신용거래용자 금리 인상... 연 8.4%에서 8.6%로 0.2%p 인상... 미래에셋증권도 금리 산정방식을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변경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할 수 없습니다.